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동부유럽 권역



## 튀르키예의 여름, 그 햇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영

“

물가 50% 뛸 튀르키예,  
기준금리 25%까지 올렸다

조아름 기자, 2023.8.24

”

벌써 이스탄불에서 살아온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남편의 주재원 생활로 시작된 이스탄불 살이로 나는 어느새 튀르키예인과 함께 서로의 작고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 나눈다. 그래도 아직 튀르키예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외국인인 나에게 그들은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 편하게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같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엄마라서 그런 것일까. 튀르키예어를 조금 하는 외국인이라는 친근감 때문인 것일까. 나는 이 곳에서 이번 여름, 제법 많은 튀르키예인을 만나고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튀르키예의 학제는 유럽 스타일을 따른다. 가을 학기에 새 학년의 시작되고 한 학년이 끝나는 여름인 6월이면 80여 일의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아이와 함께 긴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이스탄불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며칠 새 또 가격이 올라버린 카페의 커피 한 잔 대신 작은 생수 한 병을 열어 물을 마신다.

방학이라고 마냥 놀 순 없는 것이며, 아이를 위해 긴 방학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는가. 아들과 뜨거운 햇살을 피해가며 이스탄불에서 아이에게 보여줄 만한 교육적인 것을 찾아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들과 자동차에 올랐다. 그리고 거리의 한 아이가 정차한 차량의 창문을 두드린다. 아이는 두 손 가득 물병을 들고 있다. 그 아이는 나에게 물 한 병을 팔고 싶은 것이다. 아이는 내게 내가 아는 물 값의 4배의 가격을 말한다. 튀르키예의 뜨거운 햇살에 달궂진 차처럼, 물을 팔기 위한 아이의 얼굴은 빨갛다 못해 검게 타 오르고 있었다.

물 한 병을 팔기 위해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뾰뾰한 도로 위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한 아이가 서 있다. 차로 막힌 거리 사이를 가로지르며 물병과 여러 개의 시미트(튀르키예 전통 빵)가 걸린 긴 막대기를 흔들며 서 있는 아저씨 옆을 지나 그렇게 도로 위에 정차한 차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차들 사이를 지나가는 그 아이의 겁 없는 몸짓은 지금 이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더욱 가혹하며 애처롭다.

아들의 새 학기가 시작한 오늘, 긴 여름 방학의 끝을 알리는 이른 아침, 아들은 지난 학기의 개학 때처럼 학교 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의 스쿨버스에 함께 하던 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지난 학기 3대였던 아들의 학교 버스는 이번 학기에는 2대만 운영된다고 했다. 시내에 살면서 버스를 타던 국제 학교 재학생 아이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이다.

아들이 다니는 국제 학교는 튀르키예 교육부 규정상 튀르키예인의 입학은 불가하며 외국인만이

입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름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면 학생들은 부모의 임기에 따라 또는 휴가를 맞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은 유월의 초여름 햇살 아래에서 서로 이별을 맞이한다. 그러나 올해는 아이들의 이별의 이유가 이전과는 많이 달랐다. 더 나은 주거 조건을 위해 이스탄불 시내를 벗어나 이스탄불 도심 외곽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었다.

보통 한국 주재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외 근무자들 또한 자신의 근무지와 아이의 학교를 중심으로 주거지를 결정한다. 이전 한국인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아이 친구 엄마는 더 이상 이스탄불 도심에서 이전과 같은 집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집주인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집값을 올리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물론 집의 상태나 조건을 낮춘다면 도심에서 살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집에는 살기 싫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스탄불의 집값 또한 무섭게 오르고 있다. 아들은 시내 학교를 떠난 친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른다. 아들의 친구들은 다시 도시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다시 떠올린다.

튀르키예는 물을 배달해주는 아저씨에 대한 명칭이 따로 있다. 그 호칭은 바로 ‘수주(sucu)’이다. 물

을 배달하는 사람의 직업명이 따로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튀르키예에서는 한국처럼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수를 사 먹는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에는 다양한 물 브랜드가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SIRMA’, ‘Hamidoye’, ‘IBB’ 등 여러 물 회사가 존재한다.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없으니 당연히 물을 생산하는 회사도 막강한 힘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 튀르키예의 생수 수요와 시장 규모는 엄청나다.

나 또한 한 달에 한 번, ‘수주’에게 물 배달을 요청한다. 얼마 전 튀르키예에서 유명한 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보니 물 값이 한 달만에 또 올랐다. 결국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구매를 위해 페트병이 아닌 큰 물통에 든 물을 구매하였다.

일반 페트병 물통은 ‘수 쉬세시(su şişesi)’로 부르지만, 엄청 큰 물통은 ‘다마자나(Damacana)’라고 부른다. ‘큰 물통’이란 뜻이다. 물 회사는 큰 물통에 생수를 담고, 수주는 이를 가정에 배달한다. 가정에서 다 사용한 물통은 다시 물 배달부인 수주가 수거하여 재사용 한다.

깊은 밤, 물 배달부인 수주는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땀을 흘리며 우리 집의 벨을 눌렀다. 그리고 물 값 외에 물통의 보증금 값을 요청하였다. 물 배달부는 내게 물병 한 개당 보증금이 80리라라고 말했다. 남편은 한꺼번에 다섯 통을 주문했고 그 날 밤, 400리라가 나의 주머니에서 물이 아닌 물통 보증금으로 나갔다. 한화로 약 3만 원 초반에 해당하

는 금액이다. 지난 튀르키예의 삶을 돌아볼 때, 평범한 큰 플라스틱 통의 값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 금액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 다니던 튀르키예 어학원에 가서 했더니, 튀르키예어 선생님은 예전에 큰 물통 보증금으로 20리라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주었던 금액과 달리 나는 물통의 보증금으로 무려 4배의 가격을 치른 것이었다. 물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으로, 분명 3년 전 이 곳의 처음 왔던 그 때와는 삶의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지금의 튀르키예는 이렇듯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것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조용한 동네 카페의 커피 한 잔, 작은 물 한 병, 물 배달부가 이고 온 커다란 물통의 보증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까지 삶의 모든 것들이 오르고 있다. 그 기세는 지난 지진과 대선 이후 더욱 가팔라졌다.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 속에서 한 아이가 도로를 누비며 물 한 병을 팔기 위해 여전히 서 있다. 과연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인 나에게도 이제는 비싸다고 생각되는 이스탄불의 물가 변화 속에서 그 아이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여름의 햇살은 그렇게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연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기준 금리를 올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 햇살은 뜨겁다. 그 거리의 소년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잘 견뎌낼 수 있을

까. 나 또한 달궂진 뜨거운 차 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닦아낸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 도로 위의 아이에게 작은 물병을 받아들고,  
물병 값을 치루고도 남은 돈을 건넨다.

이 여름, 이스탄불의 햇살은 물을 파는 아이에게도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뜨겁다. 이 곳, 튀르키예의  
여름 그 햇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